신안군, 제76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오늘 자은면 자연 휴양림서 해송 200본 기념식수

박우량 군수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조성 노력"

신안군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자은면 백산리 자연 휴양림에서 24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규모를 축소 군수,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30여 명만 참석하여 해송 200본을 기념식수 한다.

군에서는 이번행사를 시발점으로 2021년도 조림사업으로 32헥타의 산림에 황칠,편백 등을 식재하여 경제수, 큰나무, 특화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생활권 주변 및 가고 싶은 섬 321헥타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실시 임목 생장 촉진으로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나무심기를 통해 군민의 나무사랑 정신을 북돋고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 매년 식목일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조성'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며 지구 온난화, 황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사업량 100동…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서 접수

무안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사업량은 100동이며,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인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최대 2억), 리모델링(최대 1억)을 지역농협을 통해 저금리 융자대출(고정 2% 또는 변동금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측량 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061-450-57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배움지도사 5명 역량 강화

취약·위기가정 문제 해결 지원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조혜정)가 지난 18일 배움지도사 5명을 대상으로 1차 정례회를 진행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1년 달라진 주요 지침 변경을 안내하고, 배움지도사로서의 책무를 주지시켰다. 또 각 가정의 상황과 아동 특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배움지도사로서 역량을 함양했다.

배움지도사는 가족사례관리 대상 가정의 초등학교~중학교 자녀에게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기초학습수준 향상, 자기주도학습지도, 일상생활지도, 멘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움지도사들은 "아이들 지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고, 동료들끼리 보람과 고충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조혜정 센터장은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취약·위기가정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특히 학습정서지원은 기초학력과 정서안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위기가정 자녀들에게 사회성 발달과 자존감 향상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교육, 가족 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역량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등을 실시해 가족 내 문제를 예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지원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okpo.familynet.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279-2313~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신북면, '우리마을 변천사' 앨범 제작

48개 마을 주민 소풍·졸업식·결혼식 등 다양한 사진 기증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48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우리마을 변천사'앨범을 제작키로 했다.

신북면은 해마다 1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0년 이후에는 작은 마을은 통폐합 될 위기에 처해 질 수 있어 잊혀져가는 마을의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풍, 체육대회, 졸업식 등 단체 및 마을행사와 결혼식, 돌사진 등 가족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진들을 기증하고 있다.

사진 장르별로 추억 속 장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잊혀져가는 고향의 추억과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앨범을 제작하여 마을 주민들과 공유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자긍심도 고취시킬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주민들에게 그동안 잊혀졌던 옛 추억을 떠올려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여 조금이나마 심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북면 관계자는"최근 기록 보존이 중요한 시대를 반영하는 아카이브 문화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 이때에 신북면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우리마을 변천사'를 제작하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신북면 마을의 소중한 자료가 널리 공유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작은영화관 개관

다음달 4일 본격 운영 돌입

24억 투입 2개관 109석 규모

영광군은 오는 3월 4일 '영광작은영화관'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광작은영화관'은 24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94㎡,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고 2개관 109석 규모로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개관식을 잠정 연기했었다. 영화관은 1관 49석(2D), 2관 60석(3D), 매표소, 매점,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영광작은영화관은 장흥 정남진시네마('15년)을 시작으로 고흥, 진도, 완도, 곡성, 화순, 보성에 이어 전남 8호점이며, 1990년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영광영화관들의 맥을 다시 잇는 소규모극장이다.

영광군은 '영광작은영화관'이 일상에 지친 군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접 운영하고, 개관 기념으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영광군민(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사회(영화 미나리, 고백)를 갖는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농기계 임대료 카드로 결제하세요"

함평군이 농기계임대사업장 3개소(본점, 동부점, 서부점)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함평군은 농기계 임대료를 고지서 납부로 받았으나, 간편하게 카드로 결제하고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

김동표 소장은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바쁜 영농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www.hampyeong.go.kr/aml)에서 예약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